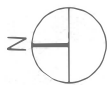


계동98번지 일대에는 막힌 골목들이 연결되면서 만들어진 옛 도시조직의 흔적이 남아있다. 1912년 지적도를 보면 98번지 앞의 작은 공터를 중심으로 몇 개의 비정형 필지들이 모여있다. 1930년대 이후에 남쪽에 인접한 계동99번지와 계동101번지 등이 도시한옥주거지로 개발되면서 이 막다른 골목이 남쪽으로 연결되었다.

대지면적: 98평
 건축면적: 31평
 실 측: 김영수, 이영석, 주영재, 문정기, 성태원, 조성심(2001.7)



SCALE 1/400

